



연합뉴스 파업사태 해결...공정보도장치 신설 공정보도 책임평가제 · 편집총국장제 도입 고용차별 해소 · 인사 공정성 확보도 합의

연합뉴스 노조는 총파업 103일째인 25일 온라인 투표로 사측과의 잠정 합의안을 추인하고 파업해제를 선언했다.

23~25일 진행된 투표에서 조합원 470명이 참여해 찬성 329명(70%), 반대 141명(30%)으로 찬성이 재적 절반을 넘겨 합의안이 가결됐다.

이에 따라 연합뉴스 노조는 '연합뉴스 바로세우기'의 일환으로 지난 3월 15일부터 시작한 23년 만의 총파업 투쟁을 일단 중단하고 26일 업무에 복귀한다.

앞서 연합뉴스 노사는 21일 파업사태 해결을 위한 협상을 잠정 타결한 뒤 22일 조합원총회를 열었다.

노사 양측은 ▲보도 공정성 제고 ▲합리적 인사 ▲뉴스통신 경쟁력 강화 ▲근로여건 개선 ▲사내 민주화 제고 ▲지역 취재본부 시스템 개선 및 차별 해소 등을 위한 제도를 마련키로 합의했다.

이를 위해 제도개선특위를 설치해 운영하고 합의한 내용부터 즉각 시행에 들어갈 방침이다.

또 편집권 독립을 제도로 보장함으로써 경영진의 압력으로 인한 공정보도 정신의 훼손을 막기로 했다.

중간평가를 받는 편집총국장(가칭) 제도를 도입한다. 아울러 공정보도 책임평가제를 시행해 보도의 공정성과 관련한 심각한 문제 제기가 있으면 편집총국장을 포함한 제작국장에게 인사조치를 노조가 요구할 수 있도록 했다.

사측은 인력 채용과 운용에 있어 호봉/연봉 사원, 제작/비제작 부서, 지역, 성 간 차별 해소를 위해 노력하고, 인사의 공정성과 관련해 노조의 문제



제기가 있을 경우 성실하게 답변할 의무가 있다는 내용도 합의문에 담았다. 노사는 파업 사태와 관련해 서로 민·형사상 책임을 묻지 않기로 합의했다.

양측은 또 화합 분위기를 조성해 독자와 고객들에게 파업 이전보다 더 나

은 뉴스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노력하기로 했다.

노조는 파업 결의 때 다졌던 각오로 업무복귀 이후에도 국민이 주인인 진정한 국가기간통신사, 새로운 연합뉴스로 거듭나기 위한 싸움을 계속 할 것이다.

[성명] 국민과 사원을 주인으로 세울 '103일의 역사'

103일에 걸친 연합뉴스노동조합의 파업투쟁이 일단 마무리됐다. 연합뉴스의 역사를 놓고 볼 때 결코 의미가 작지 않은 이번 싸움은 시작이 미약했다. 설마, 가능하기나 할까, 처음에는 아무도 확신하지 못했다. 소심하고 작은 목소리가 뭉치자 그 힘은 예상을 뛰어넘었다. 마음을 졸이면서도 우리가 펼쳐 일어나게 한 것은 깊은 곳에서 끓어오르는 분노였다. 잠자리에 들면서, 아침에 눈 뜰 때 일찍 출근하고 싶은 신명나는 일터를 만들겠다는 다짐이었다. 짧지 않은 기간, 쉽지 않은 길을 견디게 해준 건 희망과 서로에 대한 믿음이였다. 파업의 가장 큰 소득은 소통과 용기, 자신감이다. 정체성을 깊이 고민할 겨를도 없이 살던 우리는 스스로가 노동자라는 사실을, 이땅에서 노동자로 산다는 게 어떤 의미인지 깨우쳐 갔다. 동지, 투쟁이란 말조차 어색했던 우리는 서로의 눈빛으로 하나가 됐고 연대의 힘과 소중함도 알게 됐다.

바다에 주저앉아 나눠 먹는 김밥 한 줄에도 행복했다. 각자 말 못할 사연과 아픔이 있었지만 서로 보듬고 힘이 되어 함께 이겨내는 법도 배웠다. 몇몇이 아니라 전 사원이 주인인 회사, 국민이 주인인 국가기간통신사를 만들 수 있다는 자신감도 생겼다. 회사의 이익을 핑계 삼아 자신의 영달을 꾀하려는 사람들이 발붙이지 못하도록 할 수 있는 용기를 얻었다. 필요하다면 언제라도 다시 뭉쳐 누구와도 당당히 맞설 힘도 확인했다. 투쟁의 성과와 아쉬움을 남긴 채 업무현장으로 돌아가지만 파업 때 못지 않은 열정으로 연합뉴스 바로세우기를 위한 싸움을 잠시도 멈추지 않을 것이다. 특히 박정찬 사장과 사측이 합의사항을 충실히 이행하지 않는다면 모든 힘을 결집해 다시 전면적인 투쟁에 나설 각오가 돼 있다. 우리는 이번 파업이 노동조합뿐 아니라 연합뉴스 조직 전체와 모든 구성원의 발전에 큰 디딤돌이 될 것으로 확신하며, 파업의 교훈을 가슴 깊이 새기고 전 사원과 함께 전진할 것이다.

연합뉴스 파업, 그 뜨거웠던 103일의 기록



연합뉴스 노동조합은 지난 3월15일 연합뉴스 바로세우기를 위한 총파업의 깃발을 올렸다. 23년 만의 역사적인 파업이었다. 국외 특파원 27명도 파업에 동참했다.

노조가 파업이라는 최후의 수단을 택한 것은 박정찬 사장이 불공정보도와 독단적 경영에 대한 책임을 지고 물러나야 한다는 직원들의 열망을 짓밟고 연임을 강행하려 했기 때문이었다. 박 사장 재임 기간 연합뉴스의 보도는 언론사가 지켜야 할 최소한의 금도를 넘어 정권편향적이었으며, 권위주의적이고 독단적인 경영도 극에 달했다는 인식이 한계점을 넘었다. 이는 노조가 직원들을 상대로 실시한 경영진 평가 설문조사에서 응답자의 71.7%가 박 사장의 연임을 반대한 데에서 명확히 드러났다.

파업의 도화선은 밑에서부터 타올랐다. 막내 기수에 해당하는 28~31기 직원들이 작년 12월 중순 사내 게시판에 파행적인 방송운영과 불공정 보도를 비판하고 '바른 언론 빠른 통신'의 정신으로 복귀할 것을 촉구하는 성명을 올렸다. 이어 후배들의 외침을 지지하는 기수별 성명이 잇따라 나오면서 박 사장에 대한 비판 여론이 봇물 터지듯 터져 나왔다.

박 사장이 직원들의 의사를 무시하고 연임을 강행하려 하자 노조는 지난 2월 중순 연합뉴스 바로 세우기를 위한 투쟁을 선포하고 1인 시위에 이어 4일간 연가투쟁을 벌이며 박 사장의 연임 포기를 압박했다. 그러나 박 사장은 뉴스통신진흥회에서 차기 사장 후보 낙점을 따내며 연임의 뜻을 굽히지 않았다.

이에 노조는 3월 2일 사상 첫 비상 조합원 총회를 열어 총파업을 결의했다. 파업 찬반투표에서 투표율 93.45%에 찬성률 84.08%란 압도적인 지지로 총파업은 가결됐다.

후배들의 성명에서 파업 불길 시작돼

박 사장은 3월21일 연합뉴스 주주총회에서 끝내 사장 연임 승인을 받고 회사를 벼랑 끝으로 몰고 갔다.

같은 날 박 사장은 자신의 거취를 직원 투표에 부칠 수도 있다는 내용의 이른바 '3.21안'을 내놓으며 파업대오를 분열시키기 위한 공세에 나섰다. 하지만 이후 박 사장 자신이 투표를 통한 거취 결정 방안을 거둬들이면서 이 제안이 기만적이었음이 드러났다.

박 사장 자신이 쓴 글에서도 이 제안은 거취 투표가 아니라 '발전적인 제도를 마련하자는 데 방점을 찍었다'고 실토하기도 했다.

노조는 박 사장 출근저지 투쟁을 벌이는 한편 파업사태를 원만히 해결하기 위한 노력도 멈추지 않았다.

노조는 3월24일 성명에서 파업을 대화로 풀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밝힌 데 이어 28일에는 사장의 제안도 검토할 수 있다는 입장을 내놓았다. 노조가 전향적인 태도를 보임에 따라 4월 초엔 파업 사태를 풀기 위한 노사 양측의 공식 대화가 시작됐다. 4·11 총선 취재를 위한 필수 인력을 투입하기로 노조가 결정하며 대화 분위기가 조성되는 듯했다.

그러나 사측은 대화가 시작된 지 불과 이틀 만에 업무복귀명령을 내리며 대화 분위기에 찬물을 끼얹었다.

파업에 참여하는 조합원들의 징계를 위한 수순인 업무 복귀 명령을 받아들일 수 없었던 노조는 총선 취재인력투입 결정을 전면 철회하고 조합원 총궐기 대회를 열어 3주 총력투쟁을 선포했다. 어렵게 시작된 대화는 사측의 이중적 행태로 이렇게 며칠 만에 무산되고 말았다.

사측이 파업 사태를 원만히 해결하고 연합뉴스를 보다 나은 회사로 만들려는 의지가 없음을 확인한 노조는 4월10일 연합뉴스 바로 세우기를 위한 자체 프로그램을 가동했다. 공정보도와 사내 민주화뿐 아니라 콘텐츠 경쟁력 개선과 차별 해소, 지역본부 문제 해결 등을 위한 6개 소위를 출범시킨 것이다. 이들 소위는 박 사장 재임 기간 억눌린 목소리를 하나둘 모으며 연합뉴스 발전을 위한 발걸음을 내디뎠다.

같은 날 4~7기를 중심으로 중간 간부 29명은 상반기 내 사장 거취 투표 실시와 노사 공동 제도개선 특위구성을 골자로 한 이른바 '4~7기 안'을 제시했다. 노조는 심사숙고 후 이를 받아들이기로 했다.

그러나 사측은 입장을 밝히지 않은 채 '시간이 필요하다', '당장 할 말이 없다' 등의 핑계를 대며 노조와의 대화를 차일피일 미뤘다.

노조와의 협상은 물론 중간 간부들의 중재안에도 모르쇠로 일관하던 박 사장은 4월27일야 사내게시판을 통해 입장을 밝혔다. 노사 공동 특위를 구성해 회사정상화 방안을 논의할 의향은 있지만 직원

투표를 통해 자신의 거취를 결정하는 것은 받아들일 수 없다는 것. 한달 전 내놓았던 자신의 안을 사실상 철회하겠다는 속내를 드러냈다. 더군다나 박 사장은 자신의 '마지막 제안'을 거부하면 법과 원칙에 따라 강경 대응하겠다고 노조를 겁박하기까지 했다.

노조는 즉각 성명을 내 아집과 독선으로 점철된 박 사장의 협상 태도를 비판하면서 박 사장의 거취에 대한 '민심'을 확인하기 위해 전 직원을 대상으로 한 여론조사를하기로 결정했다.

압도적인 지지로 총파업 결의... 연합뉴스 바로 세우기 분과 출범

이러는 사이 파업 대오에도 변화의 바람이 불었다.

갓 '수습' 딱지를 뗀 33기 전원(32명)이 5월3일자로 파업 대오에 합류한 것. 33기 신입 직원들의 합류는 파업 50일(5월3일)을 맞은 노조에 새 바람을 불어넣었다.

반면 이력관리에서도 파업에 동참하며 힘을 보태 주던 특파원들은 3일 업무에 복귀했다. 희비가 엇갈리는 순간이었다.

파업 50일을 맞은 사측은 노조에 대한 공세를 한층 강화했다. 2차 업무 복귀 명령을 냈고, 박 사장의 거취에 관한 노조의 여론조사를 '해사 행위'로 간주하면서 관련자 처벌을 운운했다.

하지만 노조는 예정대로 5월4~9일 온라인 여론조사를 진행했고, 결과는 예상을 빗나가지 않았다. 전 직원(816명)의 75.61%에 해당하는 617명이 참여한 여론조사에서 참여자의 93.84%(579명)는 박 사장의 사장직 수행에 반대한다고 답했고, 찬성한다는 답은 6.16%(38명)에 불과했다. 재적 기준으로 환산하면 전사원의 2/3를 훌쩍 넘는 70.95%가 반대표를 던진 셈이다.

노조는 이를 근거로 박 사장의 '결단'을 촉구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5월10일엔 '공정보도 텐트'를 출범시키며 투쟁의 수위를 높였다. 때마침 양정우 멕시코시티 특파원도 파업 대오에 재합류해 노조에 힘을 보탤었다.

사측은 노조와 쟁대위·대의원을 상대로 한 쟁의 행위금지 가처분 신청으로 맞섰다. 노조와 집행부

총회서 잠정타결안에 아쉬움과 기대 교차

“사장 거취 명시, 징계 없어야” vs

“최선의 선택...앞으로 싸움이 중요해”

연합뉴스 노동조합은 22일 센터원 서관 8층에서 조합원 299명이 참가한 가운데 임시 조합원 총회를 열고 잠정합의안을 받아들일지 열띤 토론을 벌였다.

조합원들은 잠정합의안에 대한 공병설 노조위원장의 설명을 들은 뒤 다양한 의견과 주장을 제시했다. 토론은 총회가 시작한 오후 2시30분부터 약 4시간 동안 진행됐다.

공 위원장은 ‘사장 즉각 퇴진’을 요구해온 조합원들이 사장 거취 문제 등에 대한 내용을 불만족스럽게 받아들일 수 있다는 점을 이해하면서 “잠정합의안은 우리의 상황, 파업의 기간, 상대의 태도를 종합해서 판단한 결과”라고 설명했다. 이어 “파업이 끝나도 더 힘든 싸움이 시작된다”며 “사장이 합의안을 충실히 이행하도록 업무 현장에서 싸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공 위원장은 “나뭇가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나무 전체, 나무를 둘러싼 기후환경을 모두 감안해야 하는 때가 왔다고 생각해 나름대로 고민 끝에 내린 결정과 판단을 믿어달라”고 당부하기도 했다.

하지만 일부 조합원은 사장 거취에 관한 문제가 빠졌다는 등의 이유로 잠정합의안에 반대한다는 의사를 표시했다.

한 조합원은 “박정찬 사장이 약속을 뒤집는 것을 수없이 목격했다”며 거취 문제가 빠진 합의안은 명분을 놓친 것과 마찬가지로 주장했다.

또 사측이 노조 집행부를 징계해서는 안 된다는

점을 총회를 통해 결의하고, 합의안에 추가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합의안 수용 여부를 투표에 부리기 전에 지난 100일간 이끌어온 조합원의 역사와 감정을 정리하는 시간을 충분히 가져야 한다는 조합원도 있었다. 한 조합원은 파업을 접더라도 조합원들이 수긍할 수 있는 공감대가 형성돼야 한다고 ‘끝장토론’을 제안하기도 했다.

조합원들은 노조가 함께 달려온 지난 100일을 자랑스럽게 생각하며, 대오를 이끌어온 정의대책위원회를 신뢰한다는 발언으로 서로를 다독이기도 했다.

어느 조합원은 “쟁대위는 조합원의 생계와 사장을 보호하는 법의 한계를 넘느냐 마느냐의 갈림길에서 나름대로 타협점을 찾은 것”이라고 평가했다. 다른 조합원은 “여러 가지 여건을 고려했을 때 이번 합의안을 표결에 부쳐야 하며, 부족한 것이 있다면 현장에 가서 싸워야 할 뉘그러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 조합원은 “합의안에 사장 거취가 담기지 않아 굉장히 아쉽지만 여러 제도개선 방안은 앞으로 싸움을 준비하는 초석이 될 것”이라고 희망했다.

조합원 총회에서 못다한 토론은 노조 홈페이지 게시판으로 이어졌다.

일부 직원들은 잠정 합의안에 대한 아쉬움을 토로했다. 한 사원은 “합의안을 보면 가장 중요한 내용이 박사장의 재량에 맡겨 있다”고 지적하고 “일단 합의안을 부결시키고 파업을 조금만 더 계속할 수는 없을까”라고 안타까움을 나타냈다. 또 다른 사원

은 “박 사장 퇴진이라는 목표를 달성하지 못했다는 점에서 우리는 ‘판정패’했다”며 “한 단계 진전된 합의안을 가져와 달라”며 공위원장을 ‘배신’하는 꿈을 꾸다”고 말했다.

합의안이 현실적으로 최선의 결과인 만큼 이를 ‘판정승’으로 평가하고 일터로 돌아가 새로운 싸움을 준비해야 한다는 주장도 많았다.

한 사원은 “파업 집회에 나 하나 안 나간다고 무슨 문제가 있을까”라는 무책임한 태도가 모여 여기까지 왔다”며 “우리가 파업을 더 해도 좋을 만한 각오가 돼있는지 냉정히 돌아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다른 사원은 “합의안이 제대로 이행될지는 파업 이후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에 달렸다”며 “회사의 권위주의와 비합리적 문화를 몰아내려면 더 긴 싸움이 아직 남아 있다”고 강조했다. 또 다른사원은 “우리가 지난 100일 동안무한신뢰했던 쟁대위가 가져온 합의문인 만큼 존중하자”며 “합의안이 부족할 수는 있지만, 앞으로 채워나가면 된다”고 말했다.

노조가 조합원 총회에서 합의안 추인을 다소 성급하게 추진했다는 문제제기도 있었다. 한 사원은 “총회에서 표결한다는 점이 충분히 설명되지 않았고 회의가 일사천리식으로 진행됐다”며 “다양한 의견을 들으며 마음을 정리하고 추스르는 시간이 필요했다”고 말했다.

☞ 2면에 이어

는 물론 대의원 전원을 상대로 한 법적 조치를 취한 사측의 비상식적 행태는 상황을 더욱 악화시켰다.

며칠 뒤 사측은 박 사장 거취 등에 대한 입장을 담은 안을 노조에 전달했고 노조는 5월21일 전 조합원 토론회를 열어 노사 협상과 향후 투쟁 방향에 대한 의견을 수렴했다. 이 자리에서 노조는 조합원들에게 토론 내용을 반영한 쟁대위의 안을 만들어 사측에 전달하고 본격적인 협상을 다시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막내 기자 파업대오 합류... 공정보도 텐트 농성

하지만 급물살을 탈 것 같았던 노사 협상은 5월 23일 사측이 양정우 멕시코시티 특파원에게 조기소환 인사를 내면서 전면 중단됐다. 특파원들이 업무에 복귀한 후 양 특파원 혼자만 파업 대오에 재합류한 것을 괘씸하게 여긴 사측이 임기가 1년 이상 남았던 양 특파원을 불러들이는 보복성 인사를 내렸기 때문이다.

노조는 노사협상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사측이 이런 조치를 한 것은 협상 의지가 없는 것이라고 간주하고 이를 즉각 철회하라고 요구하는 성명을 냈으며

사측과의 협상 중단을 선언했다.

다음날인 5월24일부터는 한층 강도를 높인 사장실 앞 출근저지 투쟁을 벌였다. 양 특파원에 대한 보복소환 조치를 규탄하며 조합원 200여명이 오전 8시부터 오후 5시까지 본사 7층 사장실 앞을 지키며 박 사장의 출근을 막았다.

이튿날 박 사장은 사장실 앞을 막아선 채 보복성 인사를 철회하라고 요구하는 조합원의 팔뚝을 내리치고 팔을 잡아당기는 폭력을 행사하기도 했다. 같은 날 박사장은 ‘회사를 살려야 할 때입니다’라는 제목으로 사내게시판에 글을 올려 협상 중단의 책임을 노조에 돌리는 등 적반하장의 행태를 보였고, 3차 업무복귀 명령까지 내렸다.

게다가 사측은 노조, 쟁대위원, 대의원 등 58명을 상대로 냈던 쟁의행위금지 가처분신청 사건을 빨리 진행하기 위해 피신청인 가운데 이미 법원 서류를 받은 노조, 노조위원장, 사무국장을 제외한 나머지에 대해 가처분신청을 취하하는 ‘꼼수’를 부렸다. 결국 공병설 노조위원장은 며칠 뒤 열린 가처분신청 첫 심문에 출석했다. ‘34년 통신맨’을 자임하던 박 사장이 기어코 자신의 후배이자 사원을 범정에 세운 것이다.

특파원 보복성 인사에 사장 출근저지 투쟁

이에 맞서 노조는 파업에 참여하지 않고 있지만 노조와 뜻을 같이하는 직원들을 파업 대오에 일시 합류시키는 ‘파업공감 집중투쟁’을 5월30일부터 사흘간 진행했다. 업무복귀자 등 파업 미참여자 15명이 연차휴가를 내는 방식으로 노조에 힘을 보탰다. 계약직이자 비조합원인 공준욱 사위가 집중투쟁에 동참하며 사내게시판에 올린 글 ‘무엇이 상식이고 무엇이 정의입니까’라는 파업에 대한 지지를 표명한 글로, 조합원들에게 큰 힘을 줬다.

이 무렵 노조는 양정우 특파원의 징계성 조기소환 인사에 절차상 하자가 있음을 문제 제기하고, 사측이 사규를 무단으로 고치고 개정 날짜를 조작했다는 사실을 밝혀냈다. 사측의 불법행위에 강한 비판이 쏟아졌다.

노사 간 대치 상황은 노조의 대응적 양보로 변곡점을 맞았다. 노조의 협상 재개 제안으로 6월 5일 협상이 재개됐다. 주말도 반납한 채 진행된 협상은 결국 21일 결실을 보아 공정보도 시스템 마련 등의 내용을 담은 잠정합의안을 도출했다.

이어 파업 100일째인 22일 ‘노사 잠정합의안 승인 및 파업 해제’를 안건으로 열린 임시 조합원 총회를 연 뒤 23~25일 진행된 온라인 투표에서 잠정합의안을 추인하고 25일부로 파업을 일시중단했다.

파업 투쟁 103일의 순간 · 순간들

‘연합뉴스 바로세우기’ 첫걸음(2월15일~3월9일)

‘파업까지 가고 싶지 않았건만..’

“국민 여러분께 사죄합니다”



2월15일 센터원빌딩 연합뉴스 사옥 앞에서 공병설 위원장이 박 사장 연임을 반대하는 1인 시위를 하고 있다.

다윗들과 골리앗



2월28일 사옥 7층 사장실 입구에서 박 사장 연임 저지 연가투쟁에 참여한 조합원들 앞에 박 사장이 굳은 표정으로 서 있다.

함성 대신 눈빛으로..



2월28일 사옥 7층 사장실 앞에서 조합원들이 박 사장 연임을 반대하며 마스크를 쓰고 침묵 시위를 하고 있다.

“내가 과연 언제 나갈까?”



2월29일 뉴스통신진흥회에서 차기 사장 단일후보로 결정된 박 사장이 연임 저지 연가투쟁에 나선 조합원들을 바라보고 있다.

“박 사장, 들리나요?”



3월2일 센터원 사옥 앞 한빛광장에서 열린 박 사장 연임 규탄 기자회견에서 조합원들이 7층 사장실을 향해 함성을 지르고 있다.

‘관히 왔네’



3월2일 오후 센터원빌딩 8층에서 열린 조합원 총회장에서 박 사장이 자신의 입장을 밝힌 뒤 조합원들의 아우성을 뒤로 한 채 퇴장하고 있다.

촛불에 우리의 결의를 담아



3월9일 오후 서울 보신각에서 연합뉴스 바로세우기 촛불문화제가 열리고 있다.

연합뉴스 노조, 23년 만의 총파업 돌입(3월15~21일)

“박 사장 연임 결사 반대”



“Occupy Yonhap!”

3월15일 사옥 앞 한빛광장에서 열린 파업 출정식에서 한 조합원이 미국 월스트리트 '점령'(occupy) 시위에 등장한 영화 '브이 포 벤데타'의 '가이 포크스' 가면을 쓰고 있다.

“분노하라, 연합뉴스!”



3월15일 사옥 앞 한빛광장에서 열린 파업 출정식에서 조합원들이 '분노하라, 연합뉴스!'라고 적힌 배너를 들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同志們, 辛苦了!”(동지들, 수고가 많습니다)

파업 출정식이 열린 3월15일 차대운 베이징 특파원이 7층 사장실 앞에서 발언하고 있다.

베일 벗은 '파업체조단'



3월20일 사옥 앞 한빛광장에서 열린 집회에서 31기(2010년 입사) 조합원들로 이뤄진 '파업체조단'이 직접 개사한 노래에 맞춰 파업체조를 선보이고 있다.

“공정하고 정확한 뉴스를 원하신다면..”



3월20일 조합원들이 고객사인 매일경제신문사를 찾아 21일 주주총회에서 박 사장 연임을 반대해 줄 것을 촉구하는 서한을 전달하고 있다.

‘이 연임 반델세’



연합뉴스 주주총회가 열린 3월21일 조합원들이 사옥 7층 사장실 앞에서 피켓을 들고 박 사장 연임 반대 시위를 벌이고 있다.

‘(연임이) 정말 좋은데, 뭐라 표현할 방법이 없네’



3월21일 센터원 사옥에서 열린 연합뉴스 주주총회에서 박 사장이 손을 모은 채 앉아 있다. 박 사장은 이날 총회에서 사장 연임이 확정됐다.

이제는 '퇴진 투쟁'!(3월23일~4월18일)

“빨리 나가란 말이야!”



3월23일 전국언론노조 주최로 서울역 광장에서 열린 언론노동자 총궐기대회에서 이상현 조합원이 '나는 사장님이 싫어요'를 주제로 웅변하고 있다.

“내가 누구 때문에 이 고생을...”



3월23일 서울역 광장에서 열린 언론노동자 총궐기대회에서 조합원들이 비옷을 입은 채 집회에 참석하고 있다.

몸은 멀어도 결의는 하나

구호 세 번 외치고 해산하라고?



3월27일 사옥 7층 사장실 앞에서 조합원들에게 출근을 저지당한 박 사장이 사장실을 뒤로 한 채 자리를 옮기고 있다.



열사들의 뜻 받들어

3월26일 지역에서 자체적으로 파업 투쟁을 진행하는 광주전남취재본부 조합원들이 광주 5.18묘지를 참배하고 있다.



공정보도 의지를 페달에 싣고

3월26일 '자전거 투쟁'에 나선 강원 취재본부 조합원들이 '공정보도 쟁취'스티커를 들고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따이따이!”



4월18일 한빛광장에서 열린 '연합뉴스 파업 한 달 콘서트'에서 '춘사마 차력단'이 '인간피라미드 쌓기' 차력 시범을 보이고 있다.

‘공정보도 피로 쓴다’

4월18일 한빛광장에서 열린 '파업 한 달 콘서트'에서 사회부 이상현 조합원(왼쪽)이 직접 작사·작곡한 노래 '피로 쓴다'를 부르고 있다.



화음은 곱창처럼 '쫄깃'하게

4월18일 한빛광장에서 열린 '파업 한 달 콘서트'에서 남녀 조합원 9명으로 이뤄진 아카펠라 그룹 '곱창단'이 공연하고 있다



“우리는 지치지 않는다”(5월3일~24일)

수습에서 '조합원 동지'로



5월3일 사옥 7층 사장실 앞 집회에서 이날 새로 파업 대오에 합류한 새내기(2010년 11월 입사) 조합원들이 파업 참여 소회를 밝히고 있다.

“연합뉴스 파업에 관심 1g만..”



5월3일 조합원들이 사옥 인근에서 시민들에게 파업 홍보물을 나눠주며 선전전을 벌이고 있다.

“그 분이 나가신다면 텐트노숙도 불사한다”



5월10일 사옥 앞 한빛광장에 설치된 '공정보도 텐트' 앞에서 조합원들이 결의를 다지고 있다.

‘이놈의 인기란..’



5월11일 사옥 7층 사장실 앞에서 집회를 하는 조합원들 사이로 박 사장이 출근하고 있다.

“샤이 보이’ 박 사장, 매력 없어요”



5월16일 서울 중로구 청운동 신세계 여자농구단 체육관에서 열린 조합원 체육대회에서 새내기 조합원들이 걸그룹 시크릿의 '샤이 보이'를 개사한 노래에 맞춰 율동을 선보이고 있다.

이화여대에 중남미 남성 출현?



5월24일 젊은 조합원들이 이화여대에서 재학생들을 대상으로 파업 선전전을 겸한 언론사 취업 상담 활동을 벌이고 있다.

‘언론사 취업 비법’ 전수 중

5월24일 젊은 조합원들이 고려대에서 재학생들을 대상으로 파업 선전전을 겸한 언론사 취업 상담 활동을 벌이고 있다.



힘난했던 마지막(5월25일~6월22일)



“가서 딱지나 쳐!”

5월25일 출근을 저지당한 박 사장이 스크럼을 풀고자 조합원들이 긴 팔짱을 손으로 내리치고 있다.

협상의 숨통이 끊어지다



5월25일 사장실 앞에서 박 사장 출근 저지투쟁을 벌이는 조합원들이 '근조(謹弔)'라 쓰인 종이를 들고 서 있다.

‘내 커피만은 지켜야 해’



5월25일 출근을 저지당한 박 사장이 스크럼을 짜고 자신의 사장실 진입을 막는 조합원들의 팔짱을 풀려고 하고 있다

‘힘들다.. 도대체 언제 나가는거야?’



5월24일 7층 사장실 앞에서 박 사장 출근 저지투쟁을 벌이는 한 조합원이 피곤을 이기지 못하고 앉은 채 잠들어 있다.

“노조 가입하러 오셨나요?”



5월25일 7층 사장실 앞에서 출근을 저지당한 박 사장이 6층 노조 사무실에 앉아 있다.

‘100일간 파업할 줄 알았을까’

파업 100일째인 6월22일 센터원빌딩 서관 8층에서 감정타결안 추인과 파업해제를 안건으로 조합원 총회가 열리고있다.

